

탈북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연구*

김나영** · 이정민*** · 정미지****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통일부 자료¹⁾에 따르면 탈북자의 입국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잠정 29,688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약 16%에 달한다. 탈북여성의 높은 비율은 그들이 출산한 무국적 아동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 남성과 동거하거나 사실혼, 강제결혼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²⁾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무국적 자녀들은 불안정한 신분에 의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이 남한사회로 편입될 때 정체성의 혼란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북한 이탈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입국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문제 또한 심각하여 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 지원과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³⁾

하지만 김현경⁴⁾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의 정신건강은 그간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흔히 탈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적 지원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북 부모들은 남

* 이 연구는 GS 칼텍스 마음톡톡 예술정서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대한교육봉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수, nayungkim@swu.ac.kr

***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졸업

****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6. 10. 30>.

2) 박명규 외(2011),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 탈북이주와 정착실태』(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125

3) 김정희, 김선희(2016), 집단미술치료가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12(1), p.198.

4) 김현경(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파주: 한국학술정보), p.13.

한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심리적 지원을 간과하게 된다.⁵⁾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경우, 탈북 이전이나 탈북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신체·정서적 양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탈북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트라우마로 경험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신체·정서적 발달 및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시기적 과업을 이루어야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상당수가 북한에 있던 시절이나 탈북 기간동안 오랜 도주 생활을 하며 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된다.⁶⁾ 탈북 후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장기간의 학습공백 상태에 있으며, 남한사회와 교육체계가 다르고 취학연령이 차이가 나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탈북 학생들이 취학연령 차이와 탈북 공백기로 인해 자기 연령보다 1년 내지 수년 이상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⁷⁾ 이 시기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장한 사회와 다른 환경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의 경쟁과 그로 인한 좌절감 역시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예술치료는 여러 예술 매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도록 도와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탈북이라는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겪었던 탈북 청소년에게 비언어적이며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신체와 움직임을 통한 예술치료는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적용양식이 될 수 있다.⁸⁾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안전한 매체인 미술작업을 통해 다양한 감각작업과 함께 다루고, 통찰과 승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개인의 성장 요인을 촉진하고,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⁹⁾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각각의 치료분야들이 서로 통합되어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 치료 등, 단일 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통합된 예술치료가 내담자에게 보다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¹⁰⁾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예술 매체를 서로 분리된 학문 분야로 다루지 않고, 통합적 예술치료를 적용하고자 한다. 통합적 예술치료는 음악, 무용/동작 및 기타 여러 영역의 예술 분야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통합 모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술과 심리학, 이 모든 분야를 실제 생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¹¹⁾

현재 탈북청소년을 위한 치료 연구에는 외상 후 심리적 성장 요인에 관한 김현경¹²⁾의 연구와 집단 미술치료가 외상 후 성장 및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김정희¹³⁾의 연구, 외상 후 성장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김윤진¹⁴⁾의 연구 등이 있으나, 정량적인 평가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그들이 경

5) 박도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6) Ziemek 외(2009),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먼저 온 미래』(서울: 늘봄플러스), p.270.

7) 정순택(2004), 북한이탈아동의 자기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계슈탈트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

8) 김나영(2012), 심리적 외상(Trauma)에 대한 신체심리치료 적용의 당위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p.13.

9) Malchiodi(2014),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 (New York: Guilford Press), p.23.

10) 이근매(2011),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2), p.60.

11) 임용자(2004), 『표현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작, 미술 및 언어 표현의 통합적 접근』(서울: 문음사), p.11.

12) 김현경(2013), 남한거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2, pp.225-262.

13) 김정희, 김선희(2016), pp.197-219.

14) 김윤진(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위정서절학과 외상 후 성장 및 우울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논문

험한 의미와 본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체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그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더 유용하다. 정량적 평가 외에 탈북 청소년의 미술치료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신형미¹⁵⁾는 자신의 연구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상징적 의사소통, 정체성의 구체화 등의 치료적 의미들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매체가 아닌 통합적 예술치료를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트라우마 해결을 위하여 탈북 청소년에게 12회기의 통합적 예술치료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들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비교적 원활한 대상을 선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통합적 예술치료의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본질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통합적 예술치료에 관한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상학이란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 그 현상에 대한 기술 내용을 얻는 것, 그것을 상상의 변형 작용에 맡기는 것, 그 구조에 대한 직관력을 얻는 것을 말한다.¹⁶⁾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Giorgi에 의해 제시된 현상학적 분석법은 철저히 참여자의 진술에 의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¹⁷⁾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단계가 있으며, 그 과정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선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철저히 탐색하여 전체를 인식한 후, 의미단위를 구분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여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에 관한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체험 기술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의미와 본질을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환하여 제시하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도 G사의 예술정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 경기권의 탈북청소년 기관에서 추천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주간 통합적 예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 중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원활한 대상을 선별하여 치료과정이 끝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문, pp.42-50.

15) 신형미(2006),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 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2), pp.97-98.

16) 박승혜(2013), 미술치료학 전공생의 석사학위 과정 체험 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p.4.

17) 안성원 외(2009), 미술학사 취득자의 미술치료 석사과정 경험 연구, 『실적연구학회』 10(1), p.16.

〈표 1〉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입국경위	가족
1	여	16세	초등과정	중국	부모
2	여	19세	중등과정	중국	부모
3	여	16세	중등과정	중국	부모
4	여	17세	초등과정	중국	모
5	여	16세	초등과정	중국	부모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치료를 경험한 탈북 청소년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비교적 원활한 참여자 5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된 시점에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자료 수집은 녹음과 즉석에서 이루어진 메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참여자는 연구참여 동의에 필요한 설명을 연구자로부터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 서면으로 동의한 후 면담에 응했다. 참여자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와 기관의 서면동의도 실시하였고, 면담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존중하여 참여자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 1’과 같이 특정 기호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모든 자료는 연구가 끝난 후에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 시에는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1시간 정도로 참여자 별로 1회씩 만나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에 응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고, 녹음된 모든 진술은 면담이 끝난 즉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로서 ‘판단중지(bracketing)’를 하여,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법의 4단계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각 단계를 통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한 각각의 참여자 진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필사하고 수차례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각각의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은 후 연구자는 참여자 진술문으로 다시 돌아가 심리학적 입장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통합적 예술치료 경험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는 탈북 청소년의 통합적 예술치료 경험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전형하였으며, 여러 개의 의미단위를 필요한 만큼 여러 번의 전형을 거쳐 학문적 차원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다. 네 번째는 의미단위 속에 포함된 통찰을 그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에 대한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높였다.

4.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과정

탈북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하여 미술과 무용/동작을 치료의 주요 개입 매개로 가진 통합적 예술치료과정은 사전, 사후검사 포함 총 1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한 회기당 총 90분이 소요되었다. 전체

치료과정의 목표는 첫째, 개인의 고유한 탄력성, 회복력, 적응유연성을 강화하기이다. 둘째, 창의적 자기표현과 집단의 수용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고 확인하며, 자기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집단 안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회복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무용/동작 치료에서 신체표현을 통한 자기탐색과 자기표현의 경험은 치료과정의 기본이며, 자아개념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¹⁸⁾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매 회기의 시작과 마무리에 신체동작으로 지금-여기에서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과정은 전체 목표에 따라 총 3단계로, 그 내용은 ‘토양 만들기, 뿌리내리기, 뺨어가기’의 흐름으로 고안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토양만들기의 단계는 초기인 1회기에서 3회기까지로, 1회기에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신체동작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2~3회기에는 안전한 환경의 구축을 위해 안정감과 안전감, 동기부여, 흥미, 신뢰, 수평적 공간개념(horizontal space concept)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체감각을 느끼며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과정을 가졌다. 다음단계인 뿌리내리기 단계는 치료의 중기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시간인 4회기에서 9회기까지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자아를 인식하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며 사회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서로의 신체동작을 따라 하거나 이를 반영한 자기만의 이미지 작업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각자의 이미지 작업이 단체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뺨어가기 단계는 치료과정의 후기에 해당하며 10회기에서 12회기로 구성하였다. 10회기에는 이미지 연상을 통해 외상경험을 재맥락화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11회기에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작업을 통해 과거에서 긍정적인 미래상으로 뺨어갈 수 있는 과정을 가졌다. 마지막 회기인 12회기에는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III. 연구결과

1. 탈북청소년의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의 구성요소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핵심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주제로 도출이 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통합적 예술 치료를 경험한 구성요소는 <표 2>와 같다.

<표 2> 탈북청소년의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 구성요소

핵심구성요소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새롭고 낯선 경험	새로운 매체 경험	새로운 매체를 접하며 느낀 신기함 예상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
	기회의 확장	접해본 적이 없거나, 자주 접할 수 없는 기회이며, ‘특별한 기회’라는 가치를 부여함

18) 이정민, 김나영(2010), 신체정렬 중심 무용/동작치료와 Chacian기법 무용/동작치료가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신체상, 자기효능감 및 낙인지각에 미치는 효과 비교, 『무용예술학연구』 29, pp.65-83.

(표 2) 계속

핵심구성요소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감정의 인식과 표출	양가감정의 경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의 경험
	트라우마 재체험	탈북 이전의 경험, 과거의 힘든 기억의 재체험과 그로부터 생존했다는 정서적 거리감의 인식
	좌절감 경험	익숙하지 않은 매체를 다루는 불편함과 실망
	안정감 경험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정서 경험
자기인식	신체 이완의 인식	신체가 이완되고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자각 신체 이완과 정서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기긍정 경험	자기감을 고취시키는 경험 자신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인정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을 인식	과거를 떠올리거나 현재와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봄 새로운 관점의 인식과 수용
	객관적 자기인식	제3자가 바라보듯 자신을 비추어 봄 자신을 관찰하는 객관적 시점의 인식
타인인식	친구를 사귀 경험	집단원들과의 긍정적 상호관계 형성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경험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와 배려를 경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험
	연결감의 경험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경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에 대한 인정과 수용

가. 새롭고 낯선 경험

참여자들은 통합적 예술치료에 대한 경험으로 새롭고 자주 접할 수 없으며 신기하고 처음 해 보는 경험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매체의 경험

참여자들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매체를 접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감각을 체험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는 해보고 싶었던 매체였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접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른 시간에는 똑같은 거 그러요.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그러도 돼서 기뻐어요. (참여자1)

그때 재밌었던 거가 그... 데칼코마니 했었던거거든요. 그 때 재밌었어요. 왜냐면 예상치 못했던 그림이 나와 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참여자2)

그것들은 처음으로 제가 경험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DTY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그 때 기회와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는 강렬한 운동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느낌이 되게 별다른 느낌이었어요. (참여자3)

처음으로 그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신기했어요. 신나고 기쁘고, 재미있어요. 체육만 하면 힘

듣고, 그림만 그리면 지루한데. 다 하니깐 더 재미있어요. (참여자4)

2) 기회의 확장

참여자들은 이전의 환경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디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보고하였다.

어... 중국에서 그거 안 해 봤어요. 중국에는 줌... 공부같이 했어요. 그런 과정 다 없어요. (참여자1)

그거 재미있었어요. 뭔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잘 못해 보던 거잖아요. 아무데서나. (참여자2)

나. 감정의 인식과 표출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만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감정 외에도 부정적인 감정, 두 감정이 혼재된 양가감정의 혼란스러운 경험 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양가감정의 체험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신체감각을 자극하고 현재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극도의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고 했는데 눈을, 그것도 깜깜한 곳에서 눈을 감으니까 더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 때 좀 압박. 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왔는데 확 뭔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나왔을 때 불도 켜져 있고, 사람들도 보이니까. 그리고 밝고. 바디삭스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개가 다 빨간색이라서. 좀 불길한 징조라던가, 좋은 징조도 다 빨간색이잖아요. 불안한 기분이 섞여서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되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3)

외롭고 기뻐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기쁜 것은 그때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조용한 게 좋았어요. 외롭지만 좋았던 느낌이에요. (참여자4)

답답했지만. 답답하고 또 재미있었어요. (참여자5)

2) 트라우마 재체험

참여자들은 통합적 예술치료를 경험하는 동안 동굴로부터 빠져나와 살아있다는 느낌,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떠 올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동굴에서 나왔을 때 제가 상상한 거는 엄청 예뻐으니까, 그 옆에 연보라 꽃밭이 엄... 청 넓게 펼쳐진. 그때 그냥... 어, 살았구나... 하는 느낌 들었어요. (참여자2)

저는 그 때 바다랑 나무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게 생각이 없고, 딱 뭐지. 집 한 채를 그린 거예요. 가족이 사는 집이랑. 왜냐면 저희 할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인데 한국에... 안 왔거든요. 지금은 아직 계신지 모르고, 소식도 없어요. 그때 외갓집 생각이 났어요. 그 집을 그리면서. 그게.... 7, 8살 때? 왜냐면 엄마가 자꾸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추석 같은 날, 설날 그럴 때. 지금 저희 엄마가 나이가 좀 드셨는데 제가 그 8살 나이일 때 엄마가 젊으셨고, 외가 그 쪽을 보면 많이 아프지도 않고 막 늙지도 않았을 거라 믿고,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뭐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떨어진 적이 없어서 뭐. 집 생각난다. 아니면 가족생각이 난다는 느낌을 별로 몰랐거든요. 갑자기 외갓집이 생각나가지고 아 뭐... 가족을.. 보고 싶다는 게 생각나는 게 이런 거구나 새로운 느낌이었어요.(참여자3)

3) 좌절감 경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매체를 다루는 동안 느껴지는 불편감,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음...그...생각 좋아하는데 어....그릴 때 좀 미워요. 그림 너무 안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요.(참여자1)

저는 그..점토. 어, 뭔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게 쉽게 잘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물질해가지고 금이 가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와서 좀 짜증났어요. 일단 너무 손에 많이 묻어서 힘들었고, 제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서 더 하기 싫고. (참여자2)

제가 생각했던 연보라는 정말 엄청 이쁜 연보라, 연보라 이래가지고 엄청 넓게 퍼져있고 막 하늘 있고 이랬는데 연보라스럽지 않고 진한보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참여자2)

뭐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다가 중간에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다 하고 돌? 얼굴만 있는 그런 돌. 아...화가 났어요. 처음 한 건데 긴장한 게 있어가지고. (참여자3)

4) 안정감 경험

매체가 주는 감각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참여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데 편안함을 느꼈다.

어, 그..그린 후에 봤을 때 음...그냥 좋았어요. 슬프거나 화가 나는 감정을 그린 것을 보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쁘게 그리면 마음에 도움이 되요.(참여자1)

빨간색은 별로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따뜻해서 좋았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지하에 저희 지하에 했을 때 좀 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싫었어요.(참여자2)

www.kci.go.kr

그냥 편했구요. 기대기도 하고. 구역도 나뉘어지고. 뺨 뚫린 공간에 있는 나는 어색하게... 뭘
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원하는 공간을 찾아가라고 해서 편했어요.(참여자2)

다. 자기인식

참여자들은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해 신체가 이완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
기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자기인식의 경험을 폭넓게 하게
되었다.

1) 신체이완의 인식

참여자들은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해 신체가 이완되고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러한 경험이 꼭 필
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어....꼭 필요해요. 우리 공부만 하면 안 되요. 음...쉽. 있어야 되요.(참여자1)

그런데 그냥 할 때 아, 편하다 하고, 잠들 거 같고. 처음에는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가지고 그랬
는데. 기분이 나빠 들어와도 그렇게 하고 나면 막 좀 편해졌어요.(참여자2)

이 프로그램은 마음이 풀리는, 조금 더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에요.(참여자4)

2) 자기긍정 경험

참여자들은 작업과정 안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해 칭찬하거나 작업이 끝난 후, 자신의 얼굴 표정을 확
인하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였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내 노력 후의 결과여서 마음에 들었어요.(참여자1)

아....어느 한 명의 사진을 봤는데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상상보다 제가 예쁘게 나왔어요. 저
는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되게 못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어?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뺨살을 안 한 제 얼굴이 웬지 더 나은
거 같아요. 자신감이 좀.. 웬지 그 때 웃는 게 제일 진실감있어 보였어요. 셀카 찍을 때는 좋은
각도 찾아서 좋은, 가식적으로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진 보니까 진지하고 더 그
런 거 같아요.(참여자3)

3)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자기인식

참여자들은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
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자기인식을 하였다.

중국에서 배운 문호문 생각났어요. 그거..시처럼...그거 들었을 때 너무 예쁜 마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을을 그렸어요. 벚꽃도 그렸어요. 어...강도 그렸어요. 어...마을도 그렸어

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그 중국어 제일 좋아해서 기억이 났어요. (참여자1)

그때는 내가 보는 각도랑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랑 서로 달랐던 거 같아요. 그때 뭐 어..그림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어느 한 가지 일을 이런 각도로만 봤고 다른 각도로는 안 봤는데 되돌아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바로 나갈 길이 있고 저렇게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 라는 깨달음이...(참여자3)

3) 객관적 자기인식

참여자 3은 자신을 마치 제3자처럼 밖에서 비추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나 평소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저는요...저는 딱 제3인칭으로 관찰...관찰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사사지같은. 이렇게. 그리고 또 나쁜 점이나 저 혼자서 스스로 잘못 한 적도 있고, 10대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뻐다가 번덕이 많고 생각도 되게 별거 아닌 일인데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식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은 생각이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나는 되게 평소에 몰랐던 내 자신을 보니까 거울 같았어요.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 안에 있는 다른 한 나랑 거울밖에 있는 나랑. 그렇게.(참여자3)

라. 타인인식

참여자들은 치료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알게 되고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도 친해지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친구를 사귀는 경험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어도 서로 즐거운 감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친한 사이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 그 지난주의 기분을 얘기할 때 그거 좋아요. 친구들 요즘에 뭐하는지, 요즘에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어... 친구들마다 다 다르니까, 신기해요. 음...그 집 만들었을 때 나 말했어요. 나 그 컴퓨터 받고 싶어. 그래서 ○○는 나를 컴퓨터를 줘서 좋았어요.(참여자1)

그때 안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좀 뭔가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안 친했던 친구들과 알게 되고, 맨날 시작할 때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니, 하고 친구들의 근황을 알게 되고, 그런 게 좋았어요. 처음부터 친한 애들이 아니어서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참여자2)

저는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그런 선물을 그려주고 그러니까 친구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걸로 평소에 말을 잘 안하던 친구랑 우연히 같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그림이 예쁘게 잘 나올까하는 생각했는데, 웬지 서로서로 사이에 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나는 개랑 전혀 다른 스타일로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근 예쁘게 나오고, 전

에는 개 성격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개가 뭐 자기 그림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애가 이런 애였구나, 내가 더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3)

웃겼어요. 셋이 한 팀이었는데, 이상하고, 어려운 동작을 해서 재미있고, 웃겼어요, 못생긴 동작들을 했어요. 막 이렇게 코를 누르고, 힘들어도 친구들이 잘 따라해 줘서 웃겼어요. 서로 웃긴 거 하기 경쟁도 되고. 좋았어요. (참여자4)

2)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

서로를 칭찬하는 경험을 통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공간을 배려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막 서로 그림 그리면서 뭐라고 안하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그린 거 아, 이쁘다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대요. 다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사람을 쫓았어요. 뿌듯했어요. (참여자2)

아... 되게 서로 배려한 것 같아요. 자기 공간을 뭐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하는 자기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하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애들마다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그때 애들이 서로서로 피하면서 미리 알려줬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토론을 하면서... 그런 공간차지 할 때나, 아니면 서로 선생님이 게임을 얘기해줄 때 부딪히지 말고 가고 싶은 데 가는데 다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배려해 주는 거고, 친구들도 잘 들어줘가지고 다치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참여자3)

자기가 이웃에게 필요한 걸 쫓았어요. 이웃에게 뭐 있으면 뭐 선물이나 그런 것들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받은 선물은 친구하고, 헬로우 키티주고, 선물 받을 때 너무 기뻐요. 친구들이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니깐. 그냥 준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진짜 선물받은 것처럼 좋았어요. 주면 기쁘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참여자4)

3) 연결감을 경험

참여자들은 집단작업을 통해 서로가 다르지만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이 신기하고 놀라웠다고 보고하였다.

음...그 그림이 다 다르니까 음...근데 그 색깔 같은 색깔도 있어요. 다른 그 그림 안에 같은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어요. 어...혼자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는 거 다 달라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예뻐요. 이상한 느낌 없어요. (참여자1)

퍼즐처럼. 그거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제가 어느 언니랑 그림이 잘 통한 거 같아요. 색상이 되게 잘 된 거 같아요. 딱 제가 3호라면 그 언니는 2호인데 서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두 그림이 근데 그게 젤 마지막 부분이랑 그 언니 첫 번째 부분이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쁜 그림이 되어 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색깔을 제가 두 가지 색을 섞은 건데, 그게 원래 없었던 색깔인데 나랑 똑같은 색깔을 해서 되게 놀랐어요. (참여자3)

한 사람마다 조각이 달라요. 다르게 그린 다음에 원으로 이렇게 모았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색깔이나 그... 신기한. 한 그림 같았어요. (참여자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해 탈북 청소년이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12회기의 통합적 예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과정이 종료된 이후 한국어 구사능력이 비교적 원활한 참여자 5명을 선별하여 그들의 체험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한 내용은 Giorgi의 현상학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새롭고 낯선 경험’, ‘감정의 인식과 표출’, ‘자기인식’, ‘타인인식’이라는 4개의 핵심주제아래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은 통합적 예술치료를 통해 새로운 매체를 탐색하고,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신기함을 느꼈으며, 자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공간과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편안하고 이완된 신체를 경험하면서 안전하게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과거에서 경험된 트라우마를 재체험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존했다는 정서적 거리감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더불어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self)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예술매체가 갖고 있는 비언어적 특성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김나영¹⁹⁾의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한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매체의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과 결과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또한 경험하였는데, 이를 실패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에 대한 인정을 통해 자기긍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과거의 자신과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자기인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기인식과 더불어 집단 활동을 통해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경험이나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이는 무용/동작 치료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재희²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타인인식’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에게 통합적 예술치료 경험은 ‘새롭고 낯선 경험’인데, 기존의 체육이나 미술 시간에 접하였던 동일한 매체이지만 이를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의 기존의 예술 교육이나 유사 활동과는 구분되는 경험으로, 매체의 형태적인 결과보다는 매체를 탐색하고 조율하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정서의 인식과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구분

19) 김나영(2015), 무용/동작치료를 참여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요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57(6), p.41.

20)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pp.133-153.

되어 새로운 경험이자 ‘특별한 기회’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치료의 목표가 되는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답답하지만 재미있고’, ‘외롭지만 고요하며’,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양가적 정서상태와 과거에서 기인한 트라우마를 재체험하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게 된다. 예술치료에서는 양가감정의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표현과 인식, 수용, 그리고 통합을 촉진하여 자아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의 촉각적이고 근육감각적인 경험들로 촉발된 양가감정의 인식과 표현은 예술치료의 체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트라우마의 재체험이 정서적으로 압도되기 보다는 예술매체의 투사적 운용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게 드러나고 설명되며 인식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호흡과 이완, 접촉과 같은 신체감각적 집중과 인식, 그리고 조절의 경험들을 시각적인 이미지들로 구현하여 마치 사진 속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경험과 같이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명확해지는 ‘자기인식’을 하게 된다. 자신의 신체적 경험에 집중하고, 이를 구체화한 대상을 바라보며 탈북 이전의 과거 경험들을 ‘지금 여기’와 연결하고,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현재 모습과 조우하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 참여자들은 긍정적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타인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타인인식은 자기인식의 과정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타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는 집단심리치료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통합적 예술치료에서는 공간 안에서의 몸과 움직임을 통해 나-너, 그리고 집단 간의 배려와 존중과 같은 관계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며 실재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그리고 협동과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미술작품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메시지를 체화해 주는 경험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통합적 예술치료 경험은 자기표현을 촉진하고, 정해진 결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기발견에 초점을 두는 심리치료의 과정이며, 신체움직임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매체의 통합적 전개가 맞물리면서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롭고 낯설지만 안전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안전감은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를 통해 연결감을 회복하고 자기정체성의 자원을 구축하여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한국어 구사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향후에는 통역을 통해 한국어보다 제3국 언어가 능숙한 참여자들에게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통합적 예술치료를 적용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현경(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파주: 한국학술정보.
- 박명규, 김병로, 김수암, 송영훈, 양운철(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 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임용자(2004). 『표현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작, 미술 및 언어 표현의 통합적 접근』. 서울: 문음사.
- Ziemek, M., 고경빈, 조용남, 하경용, 김영운, 박정란, 김화순, 이민희, 조명숙, 이주홍(2009). 『북한이탈주민 리포트: 먼저 온 미래』. 서울: 늘품플러스.
- Malchiodi, C. A. (2014). *Creative interventions and childhood trauma*(2 Ed.). New York: Guilford Press.
- 김윤진(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위정서철학과 외상 후 성장 및 우울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택(2015). 북한이탈아동의 자기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계슈탈트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영 (2015). 무용/동작치료에 참여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요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57(6): 39-52.
- 김나영(2012). 심리적 외상(Trauma)에 대한 신체심리치료 적용의 당위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1-15.
- 김정희, 김선희(2016). 집단미술치료가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12(1): 197-219.
- 김현경(2013). 남한거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2: 225-262.
- 박승혜, 장연집(2013). 미술치료학 전공생의 석사학위 과정 체험 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1-30.
- 신형미(2006).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 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2): 81-102.
- 안성원(2009). 미술학사 취득자의 미술치료 석사과정 경험 연구, 『질적연구학회』, 10(1): 14-27.
- 이근매(2011).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2): 59-81.
- 이정민, 김나영(2010). 신체정렬 중심 무용/동작치료와 Chacian 기법 무용/동작치료가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신체상, 자기효능감 및 낙인지각에 미치는 효과비교, 『무용예술학연구』, 29: 65-83.
-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133-153.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6. 10. 30.>.

논문투고일 2016. 11. 14.
심사일 2016. 11. 28.
심사완료일 2016. 12. 7.

The Experience Research on the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 for Trauma Resolu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Kim, Nayung · Lee, Jungmin · Jeong, Miji
Seoul Women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and identify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 sponsored by G Company's arts psychotherapy program in 2016. We had carried out 12 sessions for 3 months and interviewed 5 participants. This program was designed to integrate the art and dance/movement as the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formation of sound self-identity based on the sense of stability and social efficacy. As a result, the core themes are 'new, strange experience', 'awareness and expression of emotions', 'self-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others'. The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had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during escaping and adapting themselves to an unfamiliar environment. In the sessions, the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 facilitated the self-expression and emotional release through kinesthetic sensation and images. The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for the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 would be useful to elaborate more tailored and sophisticated program.

Keywords: Integrative arts psychotherapy(통합적 예술치료), Phenomenological study(현상학연구),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탈북청소년), Art therapy(미술치료), Dance/movement therapy(무용/동작치료)